

석사학위 논문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영혼'의 의미 연구

김 정 현

2011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선생님

본 연구는 김소월 시의 언어가 '인쇄'와 '쓰기'가 창출해내는 근대적 문자성의 감각과는 다른 층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시어를 '구술적 감각'과 '모어(母語)' 존재론적 기억과 무의식의 층위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김소월이 활동했던 시기가 당대의 근대적인 문학의 형성기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1920년대 초기의 대부분의 문인들이 추구하던 근대적인 문학어 즉 '역어(譯語)'로서의 조선어의 감각은 인쇄와 쓰기 매체가 창출해내는 '정보'의 차원인 '문자의 일차원적 평면성'에 대한 '저항'과 '일탈'이라는 미적 근대성의 가치와 관련된다. 이들의 낯설고 특이한 은유는 미적 근대성이 갖는 특징인 '개성'과 '독자성'의 가치추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소월의 '전통적' 언어는 이와는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어'로서 설명되어 왔던 김소월의 시어는 문자적 평면성과 관련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의 언어와, 매적 개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언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김소월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측면을 반영하였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일상어'적이고 '구술적'인 말이 갖는 '열린 체계'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의 시가 '모어'가 가지고 있는 '무의지적 기억' 즉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의 차원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언어와 김소월의 언어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조선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김소월의 언어는 ‘달한 체계’에 속하는 문자적 평면성과 그 이탈과 저항의 미적 근대성의 차원과는 ‘에피스테메’ 적으로 분절된다.

본고의 2장에서는 1920년의 근대문학 초창기 시기의 동인지를 풍미했던 ‘영혼’의 개념과 김소월의 ‘영혼’의 의미론적 차이를 분석했다. 이는 모두 동일한 ‘영혼’이라는 기표로서 지칭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동인지 문학인들에게 있어서의 ‘영혼’은 근대적인 문학의 가치, 즉 ‘미적 근대성’의 추구에 대한 예술가적 개인의 독자성과 개성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는 서구적인 문학의 형성과정과 맞물려가면서, 예술가적 주체의 형성 즉 ‘나’라는 개인적인 주체의 ‘내면의 성소화’를 성립시킨다. 즉 동인지 문학인들에게 자신들의 독자성을 보증하는 표상이 곧 ‘영혼’인 것이다. 그러나 김소월의 ‘영혼’은 ‘일상어’ 즉 모어의 구술성의 층위와 ‘전통’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정신적인 영역 즉 ‘무의식적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김소월이 〈시혼〉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혼’은 동인지 문학인들의 근대적인 ‘영혼’의 개념과 분리되어야 한다. 즉 동인지 문학인들의 근대적인 영혼의 개념과는 다른 층위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소월의 ‘영혼’은 그것은 모든 사물과 우주, 그리고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비물질적인 존재, 즉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심혼’과 관련된다. 따라서 김소월에게 시혼은 벤야민의 ‘조용’처럼 폐허적 현실 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본질로서의 ‘영혼’을 다시금 ‘메시아적 현재’로서의 ‘복원’한다는 개념에 해당한다.

본고의 3장과 4장에서는 김소월의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의 존재가 텍스트의 열려있는 체계 속에서 어떻게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3장의 텍스트들은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이 텍스트 내부에서 뚜렷하게 언표화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내부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표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감각’의 형태로서 텍스트 내부에 본질적으로 공존하는 경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감각적인 존재들이 인지적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모두 표면적 ‘슬픔’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능성처럼 존재하는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의 층위를 복원하려는 ‘그리움’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소월의 시가 한이나 원망 혹은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의 승화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그리움’의 마음은 항상 폐허적인 현실, 즉 ‘영혼’과 ‘기억’의 존재가 자신에게 부재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며, 시적 화자는 ‘지금’의 폐허적 현실이 아닌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으로서의 ‘영혼적’ 시공간을 추구한다. 이는 주로 ‘꽃’과 새의 공간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감각이나 ‘소리’로 표상되는 청각, 그리고 ‘은기’의 촉각적 감각, 그리고 향기의 ‘후각’적 존재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감각적 존재들은 단지 인지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과 매개되어 있다. 즉 ‘감각’에 의해 의미화되는 기억의 반영들에게 시적 화자가 강렬히 이끌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영혼’과 ‘기억’의 존재가 폐허적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시금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의 4장에서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던 ‘영혼’의 시공간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시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시들은 3장에서 보여지는 ‘그리움’의 너머에 존재하는 ‘전통’과 ‘사랑’의 측면, 즉 ‘꿈’과 ‘기억’의 존재론적 가치, 즉 유토피아의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분법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환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 전환과정은 연금술적인 변모과정, 즉 폐허적 현실을 넘어서 끊임없이 복원해야만 하는 ‘영혼’으로서의 ‘꿈’과 ‘기억’의 원리이다. 이것이 가장 집약된 것이 원형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모성표상이다. 이 모성표상들은 ‘달빛’이나 ‘바람’, ‘비’, ‘어머니’, ‘여자’의 이미지로서 드러나며, 이들은 모두 현실적 폐허의 공간을 삶의 의미론적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 풍요의 시공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신성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표상된다.

김소월은 ‘식민지 근대’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삶의 의미론적 중심이 되어주었던 ‘전통’의 정신적인 영역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시대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은 김소월이 〈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세계의 끝’에는 꿈이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국’과도 같은 폐허적인 현실 속에 다시금 생명의 풍요로운 향기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김소월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으로서의 ‘메시아주의적 테마’이다. 그러하기에 김소월에게서 보여지는 슬픔과 죽음의 다양한 변주들은 ‘나’라는 주체의 고통과 슬픔을 표면적으로 언급하더라도, 항상 ‘그리움’을 통한 역설적이고 강렬한 추구를 암묵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거리’의 극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김소월 시의 궁극적 지점에는 생명력과 풍요가 가득한 모성표상적 존재들의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의 세계야말로 김소월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이다. 즉 ‘사랑’으로서의 ‘전통’적 정신체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김소월의 ‘모어’적 측면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적인 차원을 넘어서며, ‘영혼’과 ‘꿈’, 즉 무의지적 기억과 접촉할 수 있는 조응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문학 초창기의 동인지시대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데카당스적이고 퇴폐적인 감각은 근대적인 자아와 주체의 문제, 이른바 미적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나’라는 주체의 개체적이고 강렬한 독자성을 추구하는 힘과 열정을 내포한다.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눈물과 사막의 왕, 진주, 고독, 장미, 고양이, 마돈나’ 등의 상징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자아의 고독한 영웅주의적 면모가 도달할 수 있는 ‘자아’의 환상을 형성시키면서, 우리 근대문학의 초창기를 확립시켜 갔다. 그러나 그들과 동시대에 속해 있었던 김소월은 이와는 다른 지

향점을 보인다. 즉 김소월식 슬픔의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고독한 영웅의 낭만적인 환상과는 다른 '유토피아' 적 기억의 부재와 그 복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김소월에 대한 연구가 모두 종결되어 버렸다고 손쉽게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로운 출발점을 정초해야 하는 것, 즉 진정으로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문학'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